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주권과 말씀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1부 들어가기 '주권과 말씀'(그림 번호 2.1로 보아 2장으로 보임), 본문 쪽 표시 기준 66~69쪽 무렵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원칙 하나로 시작한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하시는 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하나님을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인 분', 더 정확히는 삼위로 계신 분으로 소개한다. 다른 종교와 철학에는 이런 분이 없다고 말한다. 이어서 이 하나님은 피조물과 뚜렷이 구별되지만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다음 이 하나님이 '언약의 주'로서 세상과 관계하신다고 말하고, 주되심의 세 얼굴(다스림·권위·임재)과 이에 맞춘 세 관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능력과 권위와 임재를 함께 지니고 온다.

📜 절별 정리

📜 1. 절대 인격체 — 말씀하시는 분부터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세운다. 이 내용은 자신의 『신론』 앞부분을 간추린 것이라고 밝힌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끝이 없다. 존재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해서도 다른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신다.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말의 뜻이다. 그런데 이 절대자는 동시에 인격이시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신다. 더 나아가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도 혼자 자기를 찬미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부·성자·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프레임은 하나님이 혼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서

움직이는 제1원인), 헤겔의 절대정신은 절대적이지만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말하지도 못한다. 반대로 가나안·그리스·애굽·바벨론·인도·현대 이교의 신들은 인격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둘을 함께 갖춘 분, 곧 말씀하시는 절대자는 성경의 하나님뿐이다. 그런 분은 자기 말이 참임을 보여 주려고 바깥의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슬람교·유대교·여호와의 증인·모르몬교는 이 개념에 가까이 온다. 그러나 프레임은 세 가지를 지적한다. 그 주장은 그 종교의 다른 가르침과 부딪히고, 삼위격성이 없으며, 그 생각 자체가 성경에서 빌려 온 것이라는 것이다.

1. 말씀을 알려면 말씀하시는 분부터
2. 하나님은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이시다
3.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 사이의 사랑이다
4. 비인격 절대자와 비절대 인격신은 말 못 한다
5. 말씀하시는 절대자는 바깥 보증이 필요 없다

> —
>
> 이 절에서 저자는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신론』의 논의를 요약하는 부분)

“오직 기독교의 절대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다.”

📜 2.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삼위로 계신 절대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구분 속에서 세상과 관계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프레임은 스승 반틸(Cornelius Van Til)의 그림을 가져온다. 위에 큰 원(하나님)이 있고, 아래에 작은 원(피조물)이 있으며, 두 원은 선으로 이어져 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기를 그만두고 피조물이 되실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가깝게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칼케돈 신조가 말하듯 두 본성은 섞이거나 뒤엉키지 않는다. 성육신하실 때도 하나님은 신성을 버리거나 훼손하지 않고 인성을

본성은 구분되지만 떨어져 있지 않다. 창조주는 늘 피조물 곁에 계시며, 모든 피조물의 삶은 매 순간 그분과의 관계 덕분에 가능하고 의미를 얻는다.

1. 하나님은 절대적, 우리는 아니다
2. 반틸의 두 원: 구분되지만 이어져 있다
3. 성육신에도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는다
4. 구원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이다
5. 구분되지만 멀지 않다, 늘 현존하신다

> **사도행전 17:28**
>
> 피조물의 삶과 움직임과 존재가 매 순간 창조주께 달려 있다는 근거. 구분이 거리를 뜻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 3. 언약의 주

창조주는 '언약의 주'로서 피조물과 관계하신다. 성경에서 '주'는 히브리어 이름 야훼(여호와)를 옮긴 말이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백성이 대대로 기억할 이름으로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신앙고백은 결국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다.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 프레임은 구약의 중심 메시지를 “여호와가 주님이시다”로, 신약의 중심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로 요약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나머지 모든 것이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다. 주님과 종 사이의 이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른다. 창조주와 피조물처럼 여기서도 둘은 뒤섞이지 않는다. 이 언약의 주되심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한 힘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최종 권위를 지닌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스라엘, 교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함께하신다. 이 관계는 복이나 저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2. 신앙고백의 핵심은 “주님이시다”
3. 주님과 종의 관계가 곧 언약이다
4. 주되심 셋: 다스림·권위·임재
5. 성막→성육신→성령, 늘 함께하심

> **출애굽기 3:15**
> 여호와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임을 보여 줌
>
>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신명기 6:4-6**
> 구약 신앙고백(쉐마)의 중심이 여호와의 주되심임
>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로마서 10:9**
> 구원의 고백이 “예수는 주”라는 고백임
>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 **고린도전서 12:3**
> “예수는 주”라는 고백이 성령으로 하는 핵심 고백임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6:7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 백성이 그분을 여호와로 알게 하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7:5

애굽 사람도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됨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7:17

재앙의 목적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8:22

고센을 구별하심으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심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10:2

행하신 일을 후손에게 전해 여호와를 알게 함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 14:4

>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 4. 세 가지 주권 속성과 세 관점 (3절 후반)

프레임은 다스림(control), 권위(authority), 임재(presence)를 '주권 속성'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지니시는 세 성품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 셋이 삼위의 위격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대체로 성부는 자연과 역사의 계획을 정하시고(권위), 성자는 그 계획을 이루시며(다스림), 성령은 그 계획을 모든 사람과 사물에 적용하신다(임재). 프레임은 이 세 겹 구조가 성경 곳곳에 되풀이되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르침 전체에도 나타난다고 예고한다. 여기에 맞춰 세상을 보는 세 관점도 구별한다. 상황적 관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벌어지는 자연과 역사를 본다. 규범적 관점은 세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로 본다. 실존적 관점은 우리 자신과 개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이 바로 그 경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이 셋은 세 조각이 아니라 같은 실재를 보는 세 방향이다. 그래서 한 관점만으로는 실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나머지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

1. 주권 속성: 다스림·권위·임재
2. 대체로 성부-권위, 성자-다스림, 성령-임재
3. 이 셋이 말씀론 전체의 뼈대가 된다
4. 관점: 상황·규범·실존
5. 관점은 부분이 아니라 보는 방향이다

> —
>
> 이 부분에서 저자는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이 절이 장 전체의 결론이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소통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으로서 소통하신다. 그것이 그분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주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는 세 주권 속성이 그대로 묻어 있다. 첫째는 능력이다. 말씀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룬다. 둘째는 권위다. 앞 장에서 다룬 것처럼 말씀은 듣는 이에게 의무를 지우고, 사람이 판정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셋째는 임재다. 말씀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프레임이 앞에서 세운 '인격적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

1.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말씀하신다
2. 말씀의 능력은 뜻을 반드시 이룬다
3. 말씀의 권위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4.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5. 하나님의 말씀 = 주님의 인격적 말씀

> **이사야 55:11**
>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을 이룸 — 말씀의 능력(다스림)
>
>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 **로마서 4:20**
>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음 — 따지지 않고 믿어야 할 말씀의 권위
>
>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요한복음 1:1**
>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 — 말씀 안의 하나님 임재
>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주되심을 포기할 수 없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절대 인격체
아무것에도 기대지 않는 절대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알고 사랑하고 말하는 인격이신 분.

삼위격성
한 하나님이 성부·성자·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성질.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이 영원 전부터 삼위 사이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존
하나님이 다른 무엇 덕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다는 것.

자증
다른 증인 없이 스스로 자신이 참임을 증언한다는 것.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쓰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다.

창조주
피조물 구분 —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이 다르며, 서로 섞이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원리.

451년 칼케돈 공의회가 정한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도 나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언약

주님과 종 사이에 맺어진 관계. 다스림과 약속, 복과 저주가 함께 따른다.

주권 속성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지니시는 세 성품. 다스림(통제하는 능력), 권위(따라야 할 말씀), 임재(함께하심)를 말한다.

관점주의(규범·상황·실존)

같은 실재를 하나님의 기준(규범), 세상과 역사(상황), 나 자신과 경험(실존)이라는 세 방향에서 보되, 셋을 함께 보아야 온전히 이해한다는 프레임의 방법.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말씀을 알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부터 알아야 한다.
-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은 기독교에만 있다.
- 이 하나님은 피조물과 뚜렷이 구별되지만 늘 가까이 계시는 언약의 주이시다.
- 주되심은 다스림·권위·임재로 나타나고, 이 셋이 말씀론 전체의 뼈대가 된다.
- 주님은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능력·권위·임재를 지닌 인격적 말씀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편 ·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